

# 소병철 “대장동 특검 주장 수사 방해”

### “수사팀 확충해 신속·철저한 수사 독려해야”

#### 야당의 시간끌기 국면전환용 정치공세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1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검찰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최근 경실련에서 주장한 특검 주장도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알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과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50억원 수수 등 ‘50억 클럽’이 드러나고 있어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람들 수사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준비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지난달 24일 법사위 전체회

의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총 13회의 특검 모두 사실상 검찰의 1차적 판단을 거쳤다는 점을 들며 야당의 특검 공세는 시간끌기용 국면전환용 정치공세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소 의원은 “토건비리 사건의 뿌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당시 수사결과발표를 보면 133명의 수사인력이 8개월 동안 수사를 했다”면서 “(검찰에) 토건비리 (전담수사팀이 꾸려지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검찰 수사를 흔들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부실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연일 공개적인 비난을 펼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실



명까지 거론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검찰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윤 후보자는 사적서 인크도 안 말했는데 계속 검찰을 비난하고, 심지어 검찰 후배들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자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언론에 과상도 의원이 (현직이라) 정치자금법에 걸릴지 모르니 아드님에게 주자는 구체적인 위장 수법까지 드러내고 있다”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력을 적게 하나면서 수사팀을 확충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독려하고 조언하는 게 선배로서의 도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을 공격하고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제출한 특검법을 보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계 특혜 여부만 주요 수사대상으로 돼

있는데,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하고 계시다”면서 “양당 간의 논의에 있어서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알수 없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언제 개시될지 문제가 있다. 검찰이 내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고 지금 시점에서는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부산저축은행 건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1천155억 원 정도 대출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규모가 적은 대출 건은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답하며,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관련 부실대출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던 점을 시사했다.

소 의원은 부실은폐의혹이 제기되는 부산저축은행비리사건 수사도 대규모 수사팀을 장기간 동원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화천대우토건비리 수사팀을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도 이를 수긍하면서 대검과 상의해서 적절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전남 전통시장 화재공제 미가입률 80%

### 송갑석 “정부·지자체가 공제 가입 지원해야”

2018년 여수 수산시장 대형 화재 등 광주 전남 전통시장에서 최근 5년간 16건의 화재가 발생해 18억3천211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피해 복구를 지원 하는 화재공제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갑)이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르면 광주·전남 전통시장의 전체 8천875개 점포 중 화재공제 미가입 점포는 7천137개로 80%에 달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간 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화재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 확충과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시



행되고 있다.

광주·전남 전통시장 화재 안전에도 취약했다. 광주·전남 지역 127개 시장 중 화재 위험이 높은 C D E 등급은 76개로 60%를 차지했다. 특히 여수 덕양시장, 벌교 매일시장 등 8개 시장은 화재 안전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큰 피해가 우려된다.

송갑석 의원은 “전통시장은 밀집된 점포, 좁은 통로, 가연성 물질 산재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 공제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두문불출 이낙연... ‘이재명 회동 시점·선대위 역할’ 고심

### 이달내 ‘여의도 복귀’ 가능성 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두문불출하며 장고에 들어갔다.

경선 결과에 공식 승복한 만큼 이번 잠행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회동 시점과 선대위 역할 등을 놓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도 고심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4일 캠프 해단식 이후 아내인 김숙희 씨와 단둘이 여행을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차량 운전은 김 여사가 도맡아 하고 있고 최근까지 강원도 모처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계획은 고향인 호남에 머물 생각이었으나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전국 곳곳에 있는 자신의 지지모임인 신복지포럼 인사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하기로 했던 일정은 출출이 취소됐고, 외부와의 접촉도 아예 끊은 상태.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며칠 전에 겨우 통화가 됐는데 본인끼리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한 듯했다. 아무래도 경선 과정에서 마음을 많이 다쳤는데 회복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요구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이 후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대화하는 송영길 대표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의용 외교통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구체적 일정 조율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11월 5일이니까 이달 안으로는 다 정리하고 상경하시지 않겠느냐”며 “캠프

에서 도왔던 의원들은 일단 대표님을 쉬게 놔두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승복 선언을 하면서 ‘강물론’을 역설, 원팀 참여 의지를 밝힌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선대위에 참

여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지자들의 상심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을 갖고 후후 선대위에서의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두환 발언부적절’ 겸허히 수용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과 관련,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어 국민들의 여망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저는 5·18 정신을 4·19 정신과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5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

은 결코 아니다”라며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찌 됐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든지 그 말이 국민들에 전달되고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했다. 비판이 있으면, 그 비판은 수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V 토론 일정이 끝나면 (평주를) 바로 좀 방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호남에 공들인 것이 퇴색했다는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잘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이준석 “전두환, 정치 안하고 통치만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한 적은 없고 통치만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수시 만흥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찬양 발언’ 관련 “어떤 의미로 발언했는지 설명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윤석열 후보의) 그 인식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대표실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만 없다. 통치 행위를 기념하거나 추념 안 하겠다는 의미”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화합하고 조율하고 정당 간의 의견

교류를 만든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특히 호남 관련 발언은 최대한 고민해서 해달라”며 “대표로서 당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 일에 있어 역사 정실과 다른 의견이 기본 정책이나 핵심 가치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선을 그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순천으로 이동해 팔마체육관에 있는 여순항쟁 위령탑을 참배한 뒤 전남도당 당협위원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www.e-dk.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